

노형욱 장관, “도시재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힘은 바로 사람”

- 16일 제6회 도시재생 한마당 개막식에서 유공자 표창·노고 격려 -

-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16일 충북 청주시 문화제조창에서 열린 “제6회 도시재생 한마당” 개막식에 참석하여 도시재생 활동 공동체와 시민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.
 - 올해로 6번째 개최된 도시재생 한마당은 주민과 지자체, 사회적 경제와 여러 전문가 등 다양한 도시재생 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성과와 경험을 나누고 소통하는 축제로,
 - 코로나-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축제기간(12.15~12.17) 중 모든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송출한다.
- 이 날 기념사에서 노 장관은 “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결은 다름이 아닌 ‘사람’에게서 나온다”면서,
 - 전국 기초지자체 199곳, 국민 754만명의 삶에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의 성과는 “3만 3천명이 넘는 주민이 도시재생대학과 같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을 직접 변화시키고 힘을 보태주신 덕분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- 아울러 “내년부터는 매년 100여개의 사업이 완료되어 도시공간의 혁신적인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면서,
 - “정부는 도시재생을 통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쇠퇴한 도시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- 한편, 노 장관은 유공자 17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, '21년 1차 도시재생뉴딜 청년 인턴십 우수 수료팀(3팀)에도 장관상을 시상하였다.

2021. 12. 16.

국토교통부 대변인